

## 의생활교육 연구 동향

문희강\* · 이에영\*\*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 Research Trends i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Moon, Hee-Kang\* · Lee, Yhe-Young\*\*

*Full-time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focused o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Among the reviewed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89 and 2008 in four journals including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n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75 articles were related to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The most popular research field was *teaching contents* followed by *teaching-learning method and teaching material*, while *clothing selection and self-expression*, *the general focus o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making clothing and household utensils* were the popular research topics.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about three quarters of articles used *survey methods* followed by *experiment method* and *documentary studies*. The rapid increase in research on clothing selection and self-expression and the decrease in articles on making clothing and household utensils seem to have had an influence on the government revision of The 7<sup>th</sup> Curriculum.

**Key Words:** 의생활교육(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교육과정 개편(the government revision of curriculum), 연구 동향(research trends)

---

## I. 서론

우리나라의 의생활교육의 역사는 오늘날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와 여학교에서 가사, 침공, 침선, 재봉, 수예, 자수, 편직 등을 가르치던 구한말(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 초·중등 교육과정의 의생활교육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1955년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년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복의 제작, 관리, 구매, 가공, 재료,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박순자, 2007). 의생활 영역은 가정과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환경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요구의 변화는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시기별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의 변화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의생활교육 내용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가정교과의 정체성 확립을 주된 목적으로 가정과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선행 고찰(윤인경·이정규·김성교, 2005; 양정혜·신상옥, 2003; 류상희, 2001; 윤인경, 2001)이 진행되었다. 또한, 가정교과의 세부 영역인 주거교육의 연구 변화를 살펴보는 논문(장상옥, 2007)과 소비자교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김나연·이기춘, 2005)도 발표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의생활교육이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가정교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가 처음 발간된 1989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발표된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들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물론 한국실과교육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는 어떠한 영역과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연구 영역과 주제에 따른 연구 방법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학회지 특성에 따라 연구 영역과 주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의생활교육 연구의 영역과 주제는 교육과정 개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관련문헌 고찰

### 1. 가정과교육 연구 동향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윤인경(2001)의 논문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1989년(1권 1호)부터 1998년(10권 2호)까지 10년간 발표된 14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영역과 유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통계 기법, 연구 대상자, 논문의 체제, 연구자의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영역에 따라서는 철학 및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과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연구, 교육평가, 교사교육,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 시설·설비 현황, 기타로 분류하였고, 연구 유형은 실험연구, 조사연구, 역사연구, 내용분석연구, 문헌연구, 질적 연구, 사례연구,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는 문헌연구, 설문지, 면접 및 면담, 전문가 협의, 실험법,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영역에서는 철학 및 역사 영역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영역별로는 논문 수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논문이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연구 유형별로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고, 역사연구와 질적 연구가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권 1호부터 11권 2호까지 발표된 가정과교육 관련 질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류상희(2001)의 연구에서는 총 158편의 논문 중 22 편의 논문이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윤인경(2001)의 연구에서 10권 2호까지 살펴 본 결과 질적 연구가 한 편도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대조되는 바이다. 그 이유는 류상희의 연구에서 질적연구에 문서자료분석, 참여관찰, 면담, 서술적 설문조사를 포함시켜 질적 연구로 분류된 22편의 논문 중 약 86.4%가 문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13.6%의 논문 중 9.1%는 문서자료 분석과 서술적 설문 조사가 병행되었고, 단 4.5%만이 서술적 설문조사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윤인경의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와 별도로 조사연구, 내용분석연구, 문헌연구 영역이 존재했는데, 이 중 조사연구에 서술적 설문조사 연구가 포함되었고, 내용분석연구와 문헌연구에 문서자료 분석 연구가 포함되어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양정혜와 신상옥(2003)은 7차 교육과정 기간인 1997년에서 2002년 중 가정과 교과교육의 연구 동향에 대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대한가정학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 학회지에 실린 총 115 편의 논문이 가정과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5%에 해당하는 98편의 논문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115편의 논문은 연구 내용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연구, 교육과정, 교과서와 교육내용, 교과 인식, 교사교육, 교육평가와 활동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교수 학습 모형개발과 교과인식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교육과정, 교사교육, 수행평가와 관련된 논문이 점차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과인식 관련 논문은 뚜렷한 감소를 보여 가정교과 위상의 안정적 정립을 유추하였다. 전반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에 미친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야 도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앞선 윤인경(2001)의 후속 연구로 윤인경 외(2005)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에 발표된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학회지별 발행 현황과 논문의 분량, 연구 영역과 주제, 연구 유형, 연구 대상자, 연구자의 특성, 학교별 논문 게재 현황, 연구비 수혜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영역은 앞선 윤인경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철학 및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

서, 교과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연구, 교육평가, 교사교육,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 시설·설비 현황,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고, 연구 주제는 교과교육학, 의, 식, 주, 가족, 가정관리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한, 연구 유형은 앞선 윤인경의 연구에서 질적연구를 기타에 포함시켜 조사연구, 실험연구, 문헌연구, 내용분석연구, 사례연구, 역사연구,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연구 영역별로는 대부분의 논문이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연구에 해당되었던 반면, 철학 및 역사와 교사교육 관련 논문이 매우 적었고 시설·설비 현황에 관한 논문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영역별로는 교과교육학 관련 논문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의, 식, 주, 가정관리, 가족학 관련 논문의 비율은 비슷한데 비해 주생활 관련 논문은 매우 적었다.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질적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연과 이기춘(2005)은 1980년대 이후 발표된 취학기 아동과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국규모의 생활과학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논문제목과 주제어에 소비자교육을 포함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소비자학연구, 소비문화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에 총 24 편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교사관련, 교육지원, 소비자교육 요구분석, 소비자 능력관련 등 일곱 개 영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중 소비자교육 요구 분석과 소비자 능력관련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영역이 소비자 교육 강화방안과 관련이 있었다. 주제별 분류 결과 가정과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동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방법에 따라서는 조사연구, 실험연구, 내용분석, 심층면접, 전문가 평가로 나누었는데, 2000년도 이후에는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의 수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연구 방법 또한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상옥(2007)은 한국과 일본의 주지교육 연구 동향을 1989년부터 2006년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일본 가정과교육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20 편의 주거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된 반면, 일본에서는 29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 영역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학교시설·설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연구 방법은 조사연구, 실험연구, 문헌연구, 내용분석연구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교과인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던 반면, 일본에서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와 교육평가 관련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 관련 논문은 한국과 일본 모두 많지 않았는데, 교육내용 관련 논문이 주거학 전공 학회에 많이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조사연구와 실험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를 참고로 본 논문의 연구 영역, 주제, 방법에 따른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 2. 초·중·고등학교 의생활교육 내용의 변화 과정

해방 이후 1946년부터 1955년은 교수요목의 시기로 교과별로 구성 내용과 교수 방향을 정해 교육과정의 기초가 세워졌다. 이 시기 초등학교에서는 오늘날의 실과 관련 과목으로 도화·공작, 요리·재봉, 실과가 있었는데, 도화·공작은 미술에 가까웠던 반면 실과에서는 농업 관련 내용을 가르쳤다. 따라서 의생활 관련 내용은 요리·재봉을 통해 교수되다가 후에 가사로 이름이 바뀌었다(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10], 2007). 당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된 6년의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가사, 재봉, 수예를 배웠다(이연숙, 1997).

제1차 교육과정기(1955~1963년)의 초등학교에서는 실과의 내용 영역 중 재봉·뜨개, 세탁·염색, 위생·보건에서 의생활교육이 이루어졌다. 중학교에서는 기존의 가사, 재봉, 수예가 실업·가정이 되면서 여학생의 경우 가정 교과에서 방직, 염색, 편물, 재봉, 세탁, 재단법을 배웠고, 고등학교에서는 원료, 재봉, 수예, 세탁, 염색 관련 내용이 교수되었다(박순자, 2007).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년)에는 초등학교 실과에서

의복 세탁, 수선, 다림질 등의 손질 방법, 재봉틀을 이용해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제작하는 방법, 염색, 아기 양말 뜨기 등을 가르쳤다. 또한 중학교 가정에서는 소재, 옷차림, 의복 및 생활 소품 제작, 세탁 및 보관, 의생활 계획 등을, 고등학교 가정에서는 남·녀용 한복 만들기, 피복관리, 피복재료, 몸차림 등을 교수하였다(박순자, 2007; 박일록·이은희, 2002).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년)에는 초등학교 실과에서 올바른 옷차림, 세탁 및 손질, 간단한 걸레와 주머니 만들기를 가르쳤다. 중학교에서는 가정을 필수로 가르치고 가사를 선택 과목으로 두었는데, 가정에서는 소재, 몸차림, 의복 수선 및 보관, 세탁, 의복 선택, 자수와 코바늘뜨기, 소품과 의복 만들기 등을 다루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의복의 기능과 변천, 몸차림, 의복재료, 의생활 계획, 디자인 원리, 양복(조끼와 바지)과 여성용 한복 제작 등을 가르쳤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 초등학교에서 다루었던 앞치마 만들기는 이 시기에 와서 중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고, 이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스커트, 블라우스, 원피스, 슬랙스, 블루머 등 다양한 의복을 제작했던 것에 비해 이 시기에는 스커트와 블라우스만 만들게 되었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소개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박일록·이은희, 2002).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옷차림, 의복 관리, 세탁, 주머니 만들기, 의복 선택과 구매, 헌 옷 이용해 덧소매 만들기 등을 가르쳤고, 중학교 가정에서는 몸단장, 옷감의 생산과 유통, 의복 선택, 세탁과 수선, 앞치마와 스커트 만들기 등을 가르쳤다. 나아가 고등학교에서는 의복의 기능과 발달, 의류 유통 및 소비, 피복재료, 세탁 및 보관,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해서 남성용 한복, 조끼, 아동복 만들기 등을 다루었다. 이 시기 중학교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자수와 코바늘뜨기 등 수예와 난이도가 높은 의복 제작 내용이 필수인 가정에서 선택과목인 3학년의 가사로 옮겨 가게 되었다. 고등학교 가정에서는 여성용 한복 대신 남성용 한복을 만들었고, 양복 상하의를 만드는 대신 조끼만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대신 아동복을 만들었다(박순자, 2007; 박일록·이은희, 2002).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년)에는 초등학교에서 간단한 바느질, 의복 관리, 옷차림, 세탁, 옷감의 종류와 품질, 의복 선택과 구입, 헌 옷 이용해 덧소매 만들기, 주머니 만들기 등을 가르쳤다(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1988). 중학교 가정에서는 의복의 기능, 옷차림, 피복재료, 주머니 만들기, 의류 산업, 의복 손질, 스커트 만들기 등을 가르쳤고, 선택과목인 가사에서 의류산업, 블라우스 제작, 자수, 편물, 수예 산업을 다루었다(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기술, 가정, 기술·가정, 가사, 1988). 고등학교 가정에서는 피복재료, 인체생리와 의복, 디자인 원리, 파자마와 남자한복 제작, 의복구입, 의복 세탁 및 관리를 다루었고, 가사에서는 한국복식사, 서양복식사, 여성용 한복 제작, 원피스 드레스 제작, 수편물을 다루었다(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기술, 가정, 가사, 1989).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년)의 초등학교에서는 옷차림, 의복관리, 간단한 기본 바느질을 이용해 방석, 주머니, 덧소매 등을 제작하였다(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실과, 특별활동, 1993).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루어진 데 반해 3학년부터 시작되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초등학교 의생활교육 대부분이 만들기 위주로 편성되어 의복의 합리적 소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정미경, 1998). 중학교에서는 가정과 가사가 통합되어 옷차림, 의복 구매, 소품(주머니, 보조가방, 옷땀개)등을 제작하였다(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1994). 고등학교 가정에서는 의복의 기능, 옷차림, 피복재료, 의복 가공, 세탁 및 보관, 간단한 의복 제작이 이루어졌고, 가사에서는 한복과 서양 의복 제작, 자수, 수편물 등을 다루었다(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I): 기술, 가정, 가사, 1995).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년)에 와서 초등학교에서는 스킨 자수, 뜨개질, 손바느질, 재봉틀을 이용해 주머니, 벽걸이, 방석, 목도리, 장갑, 받침 등을 제작하도록 하여, 제6차 교육과정에서 빈약했던 이론 부분이 오히려 거의 삭제되었다(박순자, 2007). 또한, 제3차 교육과정 이후 초등학교에서 없어졌던 재봉틀 이용이 홈페이지의 유행과 함께 다시 교수되었다. 중학교 가정에서는 의복의 기능, 옷차림,

세탁 및 수선, 민소매와 반바지 만들기 등을 다루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가정과학에서는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 재료와 관리, 한복과 서양 의복 디자인 및 제작, 편물과 자수,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등을 가르쳤다(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10], 1998).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2월 고시되어 초등학교에서는 옷차림, 의복 관리, 생활 용품 제작을 위한 대바늘, 코바늘, 재봉틀, 수예바늘의 이용 등을 가르치도록 하여 이론적인 내용을 보충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옷차림, 피복재료, 의복 구매 및 관리, 의복 수선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의복의 문화적인 측면을 배우고, 선택 과목인 가정과학에서 패션디자인, 신소재와 친환경적인 측면을 포함한 피복재료, 옷차림, 패션 산업 및 직업 등을 배우도록 하였다(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10], 2007).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된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창립되어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9년부터 2008년까지로 잡았다. 또한, 학술지는 가정교육과 실과교육 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외에, 가정학 관련 대표 학술지인 대한가정학회지를 선정하였으며, 교육내용 관련 논문이 전공학회지에 주로 게재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반영하여 (장상욱, 2007) 의생활 교육의 교육내용에 관한 논문이 집중적으로 실릴 만한 학술지로 의류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의류학회지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네 개의 학술지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을 선별하기 위하여, 우선 논문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의(衣), 패션, 의복 등 의생활 관련 용어와 함께 청소년, 아동, 초·중·고등학생, 10대, 틴(teen), 트

인스(tweens), Y세대 등을 연구 대상으로 언급한 논문들을 추출하였다. 제목과 초록으로 그 연구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 논문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내용 관련 논문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 청소년 관련 논문은 포함시켰으며, 교사의 외모 관련 논문, 교복 관련 논문 중 조사 대상을 학부모와 선생님으로 선정한 논문, 장애인 관련 논문, 청소년의 체형 및 패턴 개발 관련 논문, 외국 교복에 관한 논문, 청소년 잡지에 관한 논문, 모자 관련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신세대와 N세대 등 중·고·대학생을 넘어서 20대 후반과 30대를 연구 대상에 포함한 논문들도 제외하였다.

선택된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들은 장상욱(2007)의 논문을 참고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복합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영역에는 교과서 분석, 교육과정 변천, 교육과정 비교 연구를 포함시켰고,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에는 교수학습모형 개발 및 적용, 수업 관련 자료 개발, 지도안 개발 등을 포함시켰다. 교육 내용 영역에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의생활교육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세부 내용과 관련된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교과인식 영역에는 의생활 관련 특정 교과 내용에 대한 요구, 유용성, 필요도, 관심, 적정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교육평가 영역에는 실기평가, 수행평가방법, 수업효율성평가, 교육프로그램 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가 포함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교과인식과 함께 교사교육과 시설 및 설비 실태를 다룬 논문은 복합영역에 포함시켰다.

연구 주제는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관리, 의복과 환경, 의복디자인,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복식문화 등 일곱 개의 영역에 의생활단원 전반과 복합주제를 포함시켜 총 아홉 개로 나누었다. 의생활단원 전반과 복합주제를 제외한 앞의 일곱 개 영역은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선발 자격기준 관련 연구에서 의생활교육 관련 세부 평가내용요소로 명시된 일곱 개의 영역을 참고하여 본 논문의 분석 기준으로 선정하였다(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가정교육학회, 2008). 의복 재료의 이해에는 섬유, 실, 옷감의 종류와 특성을 비롯하여 직물

의 가공과 염색 관련 논문, 의복관리의 경우 의복의 세탁, 보관, 다림질과 관련된 논문, 의복과 환경에는 의복과 인체생리 및 건강, 의복의 형태 및 소재와 인체의 관계, 의복과 환경의 상호작용,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관련된 논문이 포함되었다. 의복 디자인에는 디자인의 요소, 원리 및 착장법 관련 논문,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의 경우 의복구성 및 제작, 의복 리폼(reformation), 수편물, 자수, 의류산업 관련 직업에 관한 논문,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에는 의복 착용동기 및 기능, 상황에 따른 옷차림, 개성, 동조성, 자아개념, 의복구매행동, 상징성 등과 관련된 논문이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식 문화의 경우 의복의 기원, 문화와 자연환경에 따른 복식유형, 한국 전통복식문화사 관련 논문 등이 포함되었다. 의생활교육의 실천도, 인식, 교육과정 별 교육 내용의 변화 등 의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는 의생활교육 전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이라는 주제를 의복관리와 함께 고려하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연구주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논문은 의생활단원 전반과 구분하여 복합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에 따라서는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로 나누고, 다시 조사 연구는 관찰법, 설문지법, 면접법을 이용한 연구로 나누었다. 이는 이은영과 정인희(2002)가 제시한 연구 유형을 참고한 것으로, 문헌적 연구에는 역사적 연구, 비판적·분석적 연구, 가설도출 연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조사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제시된 문헌연구의 경우에는 보조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조사연구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지도안 개발이나 학습모형 개발에 그친 경우 사례연구에, 이러한 개발 후 현장에 적용하여 실험을 한 경우 실험 연구에 포함시켰다. 또한 학습모형 개발이 문헌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 진행된 논문은 복수의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 추출 기준과 논문 분류 체계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논문을 선정 분류하였다. 각자 선정한 논문과 분류 결과는 바꾸어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논문 선정과 분류를 위해

서는 논문 제목, 주제어, 초록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논문의 본문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논문 분류 결과는 SPSS 11.0을 이용해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학회지와 시기에 따른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 게재 수, 전체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의 영역, 주제, 연구방법 유형별 분포, 연구영역과 주제에 따른 연구방법의 차이, 학회지와 시기별 연구영역과 주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시기별 연구영역과 주제의 차이 분석 결과와 교육과정 개편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분석대상 학회지에 게재된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의 선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할 연구논문을 선별하기 위해 198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가정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그리고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의생활교육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분량을 조사한 결과, 175개의 연구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연구논문 중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

논문 분량을 살펴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전체 연구논문 수의 13.1%(총 480개 중 63개 논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 교과 외에 기술 교과 관련 논문도 포함하는 한국실과교육학회지(3.2%)나 가정학 전반을 다루는 대한가정학회지(1.3%), 그리고 의류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류학회지(2.9%)에 게재된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의 분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정과 교육 관련 연구논문의 분량과 시대별 연구경향을 분석한 윤인경 외(2005)의 연구결과에서 대한가정학회지나 한국실과교육학회지에서 가정과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는 물론 의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2.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현황

###### 1)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논문의 게재현황

연도별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편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표 1> 연구대상 학회지에 게재된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 수 (1989년~2008년)

학회지 분류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한국실과교육 학회지	대한가정 학회지	한국의류 학회지	계
시기별 발간호수 변화	1989~1993년: 1호 1994~1995년: 2호 1996~2003년: 3호 2004~2008년: 4호	1989~1996년: 1호 1997~1999년: 2호 2000년: 3호 2001~2008년: 4호	1989~1993년: 4호 1994~1996년: 5호 1995~1997년: 6호 1998~2006년: 12호 2007~2008년: 10호	1989~1993년: 4호 1994년: 5호 1995~1996년: 6호 1997~2000년: 8호 2001년: 10호 2002~2008년: 12호	
총 호수	53	35	170	163	421
총 논문수	480	528	2,473	2,228	5,709
의생활교육 논문수	63	17	31	64	175
의생활교육 논문수(%)	13.1%	3.2%	1.3%	2.9%	3.1%

가 발간된 1989년에 4편의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편, 한국의류학회지 2편)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하여 2000년도 이후부터는 년간 15편 내외의 논문들이 매년 꾸준히 게재되고 있었다. 이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학회지들의 발간호수 증가에 따른 전체 연구논문의 수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생활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2)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 연구유형 분석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유형 분석 중에서 먼저 연구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의생활 교육이 다루고 있는 세부내용에 관한 연구인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논문이 가장 많았으며(65.7%), 그 다음은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16.6%), 교과과정 및 교과서 연구와 교과

인식에 관한 연구가 각각 6.9%와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교과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과정이나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논문 또한 3.5% 정도 있었으나,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1.1%). 따라서, 의생활 교육 관련 연구는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와 그 외 가정과 교과교육의 방법 및 인식 등에 관한 교과교육학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과교육학에 관한 연구 중에서는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반적인 가정과교육 연구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한 양정혜와 신상옥(2003)과 윤인경 외(2005)의 선행연구에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영역의 연구가 각각 30.3%와 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김나연과 이기춘(2005)이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가 약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교육의 학문적 성격에 적합한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의 개발이 의생활 교육을 포함한 가정과교과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표 2>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 시기별 게재현황

시기 논문 수 & 비율	1989년~1993년	1994년~1998년	1999년~2003년	2004년~2008년	계
논문수	17	28	63	67	175
비율 (%)	9.7%	16.0%	36.0%	38.3%	100%

<표 3>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영역별 분류

연구영역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복합영역	계
논문수	12	29	115	11	2	6	175
비율 (%)	6.9%	16.6%	65.7%	6.3%	1.1%	3.5%	100%

<표 4>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별 분류

연구주제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 관리	의복과 환경	의복 디자인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복식 문화	의생활 단원전반	복합 주제	계
논문수	4	1	8	4	23	98	4	24	9	175
비율 (%)	2.3%	0.6%	4.6%	2.3%	13.1%	56.0%	2.3%	13.7%	5.2%	100%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주제별 분포를 <표 4>에서 살펴보면,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이 가장 많았으며(56%), 그 다음은 의생활단원 전반에 관한 논문이 13.7%,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에 관한 논문이 13.1% 순이다. 의생활단원 전반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의 주제와 의복관리, 의복과 환경, 의복디자인 등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논문들 또한 다수 존재하여(5.2%),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들이 다양한 주제의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 의복과 환경,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디자인에 관한 논문들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 5>를 살펴보면, 가정과교육 전반 혹은 주거교육 등 세부영역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윤인경 외, 2005; 장상욱, 2007), 조사연구를 시행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74.3%). 그 외 실험연구와 문헌연구는 9.1%와 8.6%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질적 연구방법의 한 가지 예인 사례연구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유형을 분류할 때, 실험연구에는 의복착의실험이나 세척을 실험 외에도 교수학습모형이나 지도안 개발 연구도 포함시켰으나, 모형 및 지도안 개발 후 적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연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학습방법 개발사례로 간주하여 사례연구에 포함하였다. 또한 한 가지 연구방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문헌연구와 기타 연구방법을 함께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한 논문들도 존재하였으며(5.1%), 조사연구를 시행한 논문 중에서 일부 연구는 관찰법, 설문지법, 면접법 등 다양한 자료수집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영역별 분포에서는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논문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에서도 선택과 자기표현에 관한 논문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교육내용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의류학 내용 전반을 다루는 한국의

<표 5>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별 분류

연구방법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복수의 연구방법	계
논문수	15	130	16	5	9	175
비율 (%)	8.6%	74.3%	9.1%	2.9%	5.1%	100%

<표 6> 의생활교육 연구영역에 따른 연구방법

연구영역 연구방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복합영역
문헌연구	10 (83.3%)	2 (6.9%)	2 (1.7%)	0 (0%)	0 (0%)	1 (16.6%)
조사연구	0 (0%)	5 (17.2%)	109 (94.8%)	11 (100%)	1 (50%)	4 (66.8%)
실험연구	0 (0%)	13 (44.8%)	3 (2.6%)	0 (0%)	0 (0%)	0 (0%)
사례연구	0 (0%)	5 (17.2%)	0 (0%)	0 (0%)	0 (0%)	0 (0%)
복수의 연구방법	2 (13.7%)	4 (13.6%)	1 (0.9%)	0 (0%)	1 (50%)	1 (16.6%)
계	12 (100%)	29 (100%)	115 (100%)	11 (100%)	2 (100%)	6 (100%)

류학회지와 가정학 분야의 대표학술지인 대한가정학회지를 추가적으로 포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영역 및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방법의 차이

연구방법별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인 <표 6>을 보면,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연구방법은 조사연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육내용 영역의 연구 중 94.8%의 논문이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인식 영역의 연구는 11편의 논문 모두가 조사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교육내용과 교과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학생이나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의생활 혹은 의생활교육 관련 태도나 인식 등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영역의 연구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83.3%),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영역에서는 실험연구를 중심으로(44.8%), 조사연구 17.2%, 사례연구 17.2%, 문헌연구 6.9% 등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어 모든 연구영역에서 조사연구가 선호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영역의 연구들은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다른 연구영역보다 특히 많았는데(13.6%), 이를 통해 의생활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

적인 교수법이나 지도안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의 통합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조사연구가 대부분의 연구주제에 걸쳐 가장 선호되는 연구방법인 반면 실험연구는 의복재료의 이해(75%),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26.1%), 그리고 의복과 환경(25%) 주제의 연구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의생활 전반에 대한 연구들은 조사연구 이외에도 문헌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많았는데(37.5%), 이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영역의 연구들이 주로 의생활전반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한편,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비교적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조사연구 39.1%, 실험연구 26.1%, 사례연구 17.4%, 문헌연구 13%), 이는 다양한 의생활교육 연구영역에서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을 주제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각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3. 학회지 특성에 따른 연구논문 유형 분류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의 세부영역인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논문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논

<표 7> 의생활교육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방법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 관리	의복과 환경	의복 디자인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복식 문화	의생활 단원전반	복합 주제
문헌연구	1 (25.0%)	0 (0%)	1 (12.5%)	1 (25.0%)	2 (8.7%)	1 (1.0%)	0 (0%)	9 (37.5%)	0 (0%)
조사연구	0 (0%)	0 (0%)	5 (62.5%)	2 (50.0%)	9 (39.1%)	96 (98.0%)	3 (75.0%)	11 (45.8%)	4 (44.5%)
실험연구	3 (75.0%)	1 (100%)	2 (25.0%)	1 (25.0%)	6 (26.1%)	0 (0%)	0 (0%)	0 (0%)	3 (33.3%)
사례연구	0 (0%)	0 (0%)	0 (0%)	0 (0%)	4 (17.4%)	1 (1.0%)	0 (0%)	0 (0%)	0 (0%)
복수의 연구방법	0 (0%)	0 (0%)	0 (0%)	0 (0%)	2 (8.6%)	1 (1.0%)	1 (25.0%)	4 (16.7%)	2 (22.2%)
계	4 (100%)	1 (100%)	8 (100%)	4 (100%)	23 (100%)	98 (100%)	4 (100%)	24 (100%)	9 (100%)

문을 주로 게재하는 한국가정교육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와 대한가정학회지, 그리고 한국의류학회지를 종합하여 논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생활교육과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의생활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용학적 측면의 논문들이 대한가정학회지나 한국의류학회지와 같은 가정학이나 의류학 영역의 대표적인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석대상 학회지를 보다 포괄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전공학회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장상욱, 2007). 그러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회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므로, 학회지 특성에 따라 연구논문 유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과 및 가정과 의생활 교육 관련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한국가정교육학회지와 한국실과교육학회지를 ‘가정과 교육 관련 학회지’로 분류하고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의류학회지를 ‘의생활 전공 관련 학회지’로 분류하여 학회지 특성에 따른 연구논문 유형의 차이를 <표 8>과 <표 9>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학회지 특성에 따른 연구영역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정과 교육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의 경우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 영역의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33.8%) 그 다음으로 교육내용 31.3%, 교육과정 및 교과서 13.8%, 교과인식 12.5% 등 전 연구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의생활 전공 관련 학회지에는 의생활교육의 세부내용 영역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의생활 교과 교육 영역 논문이 아닌 의생활교육 세부 내용영역에 관한 연구의 많은 부분이 의생활 전공 관련 학회지에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8> 참고). 연구주제 또한 표 9에서와 같이 학회지 특성에 따라 다른 분포를 나타냈는데, 의생활 전공 관련 학회지의 논문들이 주로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을 주제로 한 반면(78.9%), 가정과교육 관련 학회지에는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28.8%) 외에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26.3%)을 주제로 한 연구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게재되고 있었다. 특히 의생활단원 전반(27.5%)이나 두 개 이상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연구들이(6.3%) 가정과 교육 관련 학회지에 많이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의생활교육 내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8> 학회지 특성에 따른 의생활교육 연구영역

연구영역 학회지 분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복합영역	계
가정과교육 관련 학회지(%)	11 (13.8)	27 (33.8)	25 (31.3)	10 (12.5)	1 (1.3)	6 (7.6)	80 (100)
의생활 전공 관련 학회지(%)	1 (1.1)	2 (2.1)	90 (94.7)	1 (1.1)	1 (1.1)	0 (0)	95 (100)

<표 9> 학회지 특성에 따른 의생활교육 연구주제

연구주제 학회지 분류	의복재료 의 이해	의복 관리	의복과 환경	의복 디자인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복식 문화	의생활 단원전반	복합 주제	계
가정과교육 관련 학회지(%)	3 (3.8)	1 (1.3)	3 (3.8)	1 (1.3)	21 (26.3)	23 (28.8)	1 (1.3)	22 (27.5)	5 (6.3)	80 (100)
의생활 전공 관련 학회지(%)	1 (1.1)	0 (0)	5 (5.3)	3 (3.2)	2 (2.1)	75 (78.9)	3 (3.2)	2 (2.1)	4 (4.4)	95 (100)

#### 4. 의생활교육 연구 유형의 시기별 변천과 교육과정 개편과의 관련성 고찰

##### 1) 의생활교육 연구 유형의 시기별 변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로, 최근 20년 동안 게재된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들의 연구동향 및 시대적 변천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영역의 경우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영역의 변천은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나,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영역의 연구가 35.3%, 17.9%, 14.3%, 13.4%로 해가 갈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나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에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된 영역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김나연·이기춘, 2005; 윤인경 외, 2005). 특히, 중학교 가정과 영역에서 가장 재미가 없었던 영역으로 의생활 영역이 언급되었던 선행 연구 결과(이수희·신상옥, 1997)와 의생활 수업의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방법과 수업매체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순자, 2007), 오히려 의생활교육 분야에 특화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과인식 영역은 최근 증가하였는데, 특히 교과인식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재연구를 함께 다룬 연구들이 최근 등장하는 현상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교과인식 영역에 관한 연구의 증가추세는 더욱 뚜렷해진다. 교과인식에 대한 연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가정과교육의 연구 경향과도 일치하는 결과로(윤인경 외, 2005), 이와 같이 교과인식 영역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특히 교육과정이나 교재연구와 더불어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의 변화에 따라 의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에 부합되는 학습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손진숙·신혜원, 2006).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과정의 개편과도 관련이 있는데, 일례로 제6차 교육과정을 거쳐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실과에서 증가한 생활 및 패션 소품 제작의 비중은 재봉틀로 용품 만들거나 뜨개질 등 만들기예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박명숙·정미경, 2004; 이종금·정미경, 2006)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한편,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47.1%에서 70% 내외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학술지의 발간호수가 증가함에 따라(<표 1> 참고) 게재 논문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의생활교육의 세부내용을 다룬

<표 10> 의생활교육 연구영역의 시기별 변천

연구영역 시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복합영역 (교과인식 중심)	계
1989년~1993년	1 (5.9%)*	6 (35.3%)	8 (47.1%)	1 (5.9%)	1 (5.9%)	0 (0%)	17 (100%)
1994년~1998년	3 (10.7%)	5 (17.9%)	17 (60.7%)	1 (3.6%)	0 (0%)	2 (7.1%)	28 (100%)
1999년~2003년	3 (4.8%)	9 (14.3%)	47 (74.6%)	2 (3.2%)	1 (1.6%)	1 (1.6%)	63 (100%)
2004년~2008년	6 (9.0%)	9 (13.4%)	43 (64.2%)	7 (10.4%)	0 (0%)	2 (3.0%)	67 (100%)

\* ( )는 시기별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주제의 경우에는 <표 11>에서와 같이 기타 주제의 시기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을 주제로 한 연구와 그리고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관련 주제의 연구의 변천이 두드러졌다.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89년~1993년의 첫 번째 시기에 전체 연구의 41.2%였다가 그 이후 10.7%, 6.3%, 13.4%로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의복재료의 이해를 위한 제작 또는 환경을 고려한 재활용 등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반면에,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의복디자인, 의복관리, 의복과 환경과 같은 기타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수행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의복 제작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과, 지나친 기능위주의 교과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특히 어려운 내용으로 지각하고 있는 의복 만들기예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이금남·김행자·안영희·이남기·1996; 성화경, 1994), 의복의 유행과 패션 따라잡기, 때와 장소에 맞는 올바른 옷차림 등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자기표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강미향·오경화, 2006; 장현숙·조필교, 1995). 특히 의생활 교육에서 의복제작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및 연구가 감소하는 반면

의복선택 및 자기표현이 부각되는 현상은, 현대사회 의생활 특성 상 소비자가 직접 의복을 제작하기보다는 합리적 선택과 소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박순자, 2007) 가정과 의생활 교육의 방향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올바른 옷차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코디네이션에 관한 학습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손진숙·신혜원, 2006) 올바른 옷차림과 자기표현을 위한 코디네이션 등의 착장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이라는 주제와 의복디자인을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연구들 또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 개편과 의생활교육 연구주제의 시기별 변천의 관련성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가정과의 의생활 영역의 교육과정에도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5년 1차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7차에 걸친(2007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 왔으며, 개편 시기마다 강조/확대 혹은 축소되는 영역 및 주제에 변화가 있어왔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시기 중에는 제6차 교

<표 11> 의생활교육 연구주제의 시기별 변천

연구주제 시기	의복재료 의 이해	의복 관리	의복과 환경	의복 디자인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복식 문화	의생활 단원전반	복합 주제	계
1989년~1993년	0 (0%)*	0 (0%)	0 (0%)	1 (5.9%)	7 (41.2%)	8 (47.1%)	0 (0%)	1 (5.9%)	0 (0%)	17 (100%)
1994년~1998년	2 (7.1%)	1 (3.6%)	3 (10.7%)	0 (0%)	3 (10.7%)	12 (42.9%)	2 (7.1%)	5 (17.9%)	0 (0%)	28 (100%)
1999년~2003년	2 (3.2%)	0 (0%)	3 (4.8%)	1 (1.6%)	4 (6.3%)	40 (63.5%)	1 (1.6%)	7 (11.1%)	5 (8.0%)	63 (100%)
2004년~2008년	0 (0%)	0 (0%)	2 (3.0%)	2 (3.0%)	9 (13.4%)	38 (56.7%)	1 (1.5%)	11 (16.4%)	4 (6.0%)	67 (100%)

육과정(1992~1997), 제7차 교육과정(1997~2006), 그리고 제7차 개정 교육과정(2007)이 이루어졌으며, 의생활 영역의 주요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 모두 시수의 감소와 함께 내용상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초등과정에서는 ‘다루기’ 영역의 시수가 감소되고 ‘만들기’ 영역에 의생활 영역이 집중되게 개편됨으로써 지나치게 기능과 제작 위주로 편성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1997년에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 또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바느질 내용에의 편중 등 불균형적인 의생활교육 내용의 문제점들이 크게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박순자, 2007). 최근 이루어진 2007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은 부족하나, 내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초이론을 포함시켜 균형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며(박순자, 2007), 고등학교 가정 과학의 ‘의생활’ 영역을 ‘의복과 패션’으로 변경하고 중학교 1학년에 ‘옷차림과 자기표현’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서의 의생활과 현명한 의복소비생활을 강조하였다(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10], 1998;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10], 2007). 이는 개정 시 가정교과의 목표 또한 지식, 기능의 습득과 능력의 함양 외에도 가치판단력이 추가되어 건강한 개인의 삶이 강조되었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의생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은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 동향에도 반영되어,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순한 의복제작은 감소하고 의복의 재활용의 목적으로 만들기를 다루는 연구가 수행되는 등 실질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들은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을 전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생활 전반을 주제로 한 연구는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2000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가정생활문화라는 대영역 내에서의 의생활 문화와 의생활 내에서도 통합적인 의생활교육이 강조되는 최근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박순자, 2007)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의생활단원전반, 복합 주제 외의 영역은 연구 논문 수가 적었음은 물론 뚜

렷한 증가나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 교육과정 개편과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었다.

## V.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실린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175편의 논문이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 주제, 방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영역과 주제의 변화가 교육과정 개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린 순서는 한국의류학회지(64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63편), 대한가정학회지(31편), 한국실과교육학회지(17편) 순이었다. 또한, 5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1999년 이후에 전체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 중 74.3%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의 반이 넘는 전체의 38.3%가 최근 5년 동안 발표되어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영역별로 분류한 결과로는 교육내용 관련 논문이 6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16.6%), 교육과정 및 교과서(6.9%), 교과인식(6.3%), 복합영역(3.5%), 교육평가(1.1%) 순이었다. 교육내용 관련 논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의생활교육 관련 세부 내용을 다루는 논문이 주로 실리는 의생활 전공 관련 학회지인 한국의류학회지와 대한가정학회지가 분석 대상 학술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학술지들은 가정과교육 관련 학회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보다 연간 발간 횟수가 높아 교육내용 관련 논문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원인이 되었으나, 의생활

교육 내용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결과는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각 영역별 균형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평가와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교사교육과 시설 및 설비 실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구 주제로는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56.0%), 의생활단원전반(13.7%),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13.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의 경우 교육내용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의생활 전공 관련 학회지에 많이 실렸다. 반면, 의생활단원전반과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의 경우 가정과교육 관련 학회지에 대부분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의생활단원전반을 다룬 논문의 경우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교과인식에 관한 논문을 주를 이루었고,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의 경우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와 관련된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연구 방법 중에서는 조사연구가 전체 연구의 7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실험연구(9.1%), 문헌연구(8.6%), 복합 연구방법(5.1%), 사례연구(2.9%) 순이었다. 각 연구방법별로 특정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와 높은 연관성이 발견되었는데, 조사연구는 교육내용 관련 논문 중에서도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험연구는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와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지만,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 관련 논문의 경우 조사연구(39.1%)가 실험연구(26.1%)보다 높았던 데 반해, 의복재료의 이해 관련 논문의 경우 실험연구(75.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문헌연구의 경우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의생활단원전반에 해당하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시기별로는 교과인식 영역의 연구가 최근 5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습내용의 개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손진숙·신혜원, 2006). 한편,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 관련 논문은 그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이 영역의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다는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데, 의생활 영역의

흥미와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교육내용 중 특히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관련 논문은 최근 10년간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한 반면, 1989년에서 1993년까지 당시 발표된 논문의 41.2%를 차지하던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의 경우 1994년 이후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심과 요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 중 특히 초등교육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능과 제작에 편중된 교육내용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완하여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과 올바른 선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의생활 전반이나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연구의 증가는 통합적 의생활교육이 강조되는 최근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생활 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의생활교육이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가정교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최근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의 목표는 개인, 가정생활, 그리고 산업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원만한 개인 및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영위하게 함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가정생활과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10], 1998).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들이 가정교과의 이러한 교육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때 가정교과의 정체성 또한 확립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의생활교육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의 한 분야로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영역이나 주제에 편중된 연구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하고 통합적인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과인식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교육내용이나 주제를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상호작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의복디자인이나 의생활, 옷입기와 관리하기 등의 측면이 의복의 선택 시대에서 현명한 의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더욱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고려한 의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점차 다양해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생활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동향이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가 사회적 환경과 요구의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함에 있어 가정과교육 관련 학회지 외에 의생활 관련 전공학회지를 추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교육내용 관련 연구가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 현상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의생활 관련 전공학회지 중에서 일부 학회지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의류전공학회지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미향·오경화(2006). 의생활 영역에 대한 중학생의 수업만족도 및 필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63-77.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기술, 가정, 가사**(1989). 서울: 문교부.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I): 기술, 가정, 가사**(1995). 서울: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1988), 서울: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실과, 특별활동** (1993). 서울: 교육부.

김나연·이기춘(2005). 취학기 아동·청소년 소비자교육의 연구 동향: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4), 27-40.

류상희(2001). 가정과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1), 1-11.

박명숙·정미경(2004). 초등학교 아동의 뜨개질 경험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1), 113-126.

박순자(2007). 2007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의 실과 및 가정과 의생활 교육내용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37-60.

박일록·이은희(2002).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1), 39-54.

성화경(1994). 중·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 분야 연구내용 연구: 학생, 교사, 전공 교수의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61-72.

손진숙·신혜원(2006). 기술·가정 교과내의 의생활영역에 대한 선호도, 인식, 필요도, 실천도, 학습요구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49-16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10)**(1998). 서울: 교육부.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10)**(2007).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양정혜·신상옥(2003). 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과 교과교육의 연구 동향. **대한가정학회지**, 14(1), 61-72.

윤인경(2001). 한국 가정과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2), 73-83.

윤인경·이정규·김성교(2005). 한국 가정과교육 연구 논문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4), 55-71.

이금남·김행자·안영희·이남기(1996).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영역별 필요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1-10.

이수희·신상옥 (1997). 남녀 중학생의 의생활영역 학습내용과 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의생활 영역 학습내용과 학습과제 분석을 통하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15-130.

이연숙(1997). **가정과교수법**. 서울: 신광출판사.

이은영·정인희(2002). **의류학연구방법론**. 서울: 교문사.

이종금·정미경(2006). 초등실과 「재봉틀로 용품 만들기」 단원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I).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3), 115-129.

장상옥(2007).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 동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일본가정과교육학회지(1989-2006)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2), 115-129.

장현숙·조필교(1995).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및 의생활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활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113-123.



정미경(1998). 현대 의생활 변화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의생활교육  
 타당성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1(2), 1-17.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1994). 서울: 교육부.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기술, 가정, 가사**  
 (1988). 서울: 문교부.

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가정교육학회(2008). **기술, 가정, 기  
 술·가정 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를 위한 연구 공청회**.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가정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대안가정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초·중등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맞는 의생활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가정교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네 개의 학회지에서 의(衣), 패션, 청소년, 아동, 초·중·고등학생, 10대, 틴(teen), 트윈스(tweens), Y세대 등을 주제로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을 선별하여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살펴보고, 시기별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의 변화와 교육과정 개편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총 175개의 논문이 의생활교육 관련 논문으로 선별되었고, 이의 반이 넘는 전체의 38.3%의 논문이 최근 5년 동안 발표되어 의생활교육 관련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영역별로 분류한 결과 발표된 논문 수는 교육내용(65.7%),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16.6%), 교육과정 및 교과서(6.9%), 교과인식(6.3%), 복합영역(3.5%), 교육평가(1.1%) 순으로 교육내용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구주제별 논문 수는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56%), 의생활단원전반(13.7%),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13.1%), 복합주제(5.2%), 의복과 환경(4.6%), 의복재료의 이해(2.3%), 의복디자인(2.3%), 복식문화(2.3%), 의복관리(0.6%) 순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연구가 7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실험연구(9.1%), 문헌연구(8.6%), 복합연구방법(5.1%), 사례연구(2.9%)였다.

시기별로는 교과인식 영역의 연구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습내용의 개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 관련 논문은 그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의생활교육의 흥미와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영역의 연구가 좀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 관련 논문은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생활용품 제작에 대한 논문은 그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며, 또한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 중 특히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능과 제작에 편중된 교육내용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완하여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과 올바른 선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의생활전반이나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연구의 증가는 통합적 의생활교육이 강조되는 최근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 논문접수일자: 2009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자: 2009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5월 27일